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 of the Mother's
Korean Language Competency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Career Barriers

2020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효 선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 of the Mother's
Korean Language Competency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Career Barriers

지도교수 김 주 일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효 선

김효선의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2019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문초록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효선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청소년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인 6차년도 ‘청소년 응답자료’를 토대로 SPSS 21.0과 AMOS 18.0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에 활용한 모든 문항에 답한 1,283명을 대상으로 구조모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진로장벽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

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진로장벽에 직접적으로 부정 영향을 미치고, 다시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으로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진로장벽은 유의미한 이중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 내의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비중 역시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들은 여전히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학습영역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정감, 정체감, 소속감, 목적의식, 유능감의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가진 다양성을 사회의 잠재력으로 보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최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개별 능력과 상황을 고려한 진로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진로교육의 단계별 체계화, 자기주도적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다누리(다문화가족지원포털) 홈페이지에 진로지원사이트도 연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 학부모교육 방식의 다각화, 학부모교육 연간교육과정 개발, 자녀 진로상담관련 지원기관 소개가 필요하다. 또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 받는 것을 꺼리거나, 경제활동 참여나 가정 내 돌봄역할이 우선시되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온라인교

육을 통한 학부모 한국어교육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사의 진로지도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상담교사의 연수를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 진로상담을 위한 교육연수자료가 더욱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진로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다문화청소년전문기관 간 연계와 진로교육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진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다문화청소년, 진로결정성, 한국어능력 수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 of the Mother's
Korean Language Competency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Career Barriers

2020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효 선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문제	9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10
1. 다문화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10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18
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
제2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 및 특성	22
제3절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	24
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	24
2.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
4.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제4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진로결정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 간 관계	35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간 관계	35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 간 관계	37
3.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성 간 관계	38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41
1. 연구모형	41
2. 연구가설	42
제2절 분석 대상 및 표집방법	44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44
2. 분석방법	47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49
1. 종속변수	49
2. 독립변수	50
3. 매개변수	51
4. 통제변수	53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55
제2절 관찰변인 분석 결과	57
1.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증	57
2. 관측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59
제3절 측정모형 분석 결과	61
1. 확인적 요인분석	61
제4절 구조모형 분석 결과 및 가설 검증	65
1.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	65
2. 구조모형 경로계수 분석	68
3. 매개효과 분석	70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74
제2절 논의 및 제언	7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82
참고문헌	84
ABSTRACT	103

표 목차

〈표 2-1〉 다문화청소년의 구분	12
〈표 2-2〉 다문화청소년 관련법과 대상 범위	13
〈표 2-3〉 다문화 학생 현황('12 ~ ' 19년)	15
〈표 2-4〉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급별 취학률	16
〈표 3-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표본설계 내역	45
〈표 3-2〉 진로결정성의 척도와 문항구성	49
〈표 3-3〉 독립변수의 척도와 문항	50
〈표 3-4〉 자아존중감의 척도와 문항구성	51
〈표 3-5〉 사회적 위축의 척도와 문항구성	52
〈표 3-6〉 진로장벽의 척도와 문항구성	52
〈표 3-7〉 통제변수의 척도와 문항구성1	54
〈표 3-8〉 통제변수의 척도와 문항구성2	54
〈표 4-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56
〈표 4-2〉 관측변인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증 결과	58
〈표 4-3〉 관측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 결과	60
〈표 4-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61
〈표 4-6〉 잠재변인별 관측변인 요인적재량 분석 결과	62
〈표 4-7〉 잠재변인 상관분석 결과	64
〈표 4-8〉 초기 구조모형과 수정 구조모형의 적합도 비교	65
〈표 4-9〉 구조모형의 직접경로 분석 결과	68
〈표 4-10〉 구조모형의 직접경로와 가설검증	69
〈표 4-11〉 최종 모형의 직·간접·총 효과 분해	70
〈표 4-12〉 이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73
〈표 4-13〉 개별 매개효과 분석 결과	73

그림 목차

[그림 2-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비중 추이	11
[그림 2-2] 다문화 학생 현황	14
[그림 2-3] 사회인지진로이론 선택모형	22
[그림 3-1] 연구모형	41
[그림 3-2] 다문화청소년 패널 유지현황	46
[그림 4-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3
[그림 4-2] 초기 구조모형	66
[그림 4-3] 수정 구조모형	6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의 일생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로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Super(1990)의 직업 발달단계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성장기에서 획득한 자신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흥미, 욕구, 능력, 가치,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시험해보는 매우 의미있는 탐색기라고 하였다(김봉환 외, 2006). 또한 청소년기는 진로를 탐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고 선택하고 명료화하는 시기이다.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열어가고 발전시켜나가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진로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진로결정은 청소년기의 주요한 과업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가장 주된 고민거리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고려될 수 있다. 통계청(2019)의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직업에 대한 고민(30.2%)이다. 이는 흔히 청소년의 주된 관심사로 여겨지는 학업에 대한 고민(29.6%)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직업선택과 결정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만13세 이상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고민은 진로·진학·취업(48.2%), 성적·적성

등 공부(39.4%), 외모(17.3%) 등으로 나타나 진로문제는 이 시기의 중요한 화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비교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진로준비와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이유경 외, 2013),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은 일반가정 고등학생에 비해 전공 및 직업선택과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하나 외, 2013).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를 결정할 때 소속사회 주류구성원들이 원하는 평균수준 이상의 직업을 희망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은 이러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유비·김기현, 2015). 하지만 모든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오성배·서덕희(2012), 서덕희·조은혜(2017)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태도와 의식, 진로성숙도 등은 일반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지역사회 환경과 학교의 진로교육 여부,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주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이주민 학생들은 국내 연구결과와 같이 낮은 언어능력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진로결정을 어려워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 지지, 또래 지지 등이 개입되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ndt, 2018; Choi, 2018).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결정에 있어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 분석에 치중했지만 다문화청소년들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심리적 요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는 부

족했다(홍우정,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에서도 다문화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기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결정에 대한 고민을 넓혀가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진로선택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사회인지진로이론이다. 진로영역에 사회인지이론(Bandura, 1977)을 적용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흥미를 갖고 그와 관련된 목표를 세우며 구체적인 노력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선천적 기질, 성별, 인종,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요인과 학습경험 요인,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등의 맥락적 요인,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등의 인지적 요인이 어떠한 상호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Lent et al., 1994).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목표선택에 진로장벽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개입하며, 진로장벽을 극복하여 성취를 이루면 이는 다시 학습경험으로 축적된다. 이처럼 목표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또한 심리정서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자기효능감은 자기개념의 하위개념으로서 자아의식, 자기 이해, 자아존중감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우영숙, 2019).

일반적으로 진로선택과 결정이 개인 및 환경 변인의 상호작용 결과임을 고려하면(Super, Savicks, & Super, 1996), 다문화청소년의 낮은 진로결정 수준은 이들의 진로장벽 수준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이혜미, 2019). 진로장벽(career barrier)은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변인으로 진로를 선택하거나 진로목표 및 진로준비행동을 실행함에 있어 개

인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상황을 의미한다(Swanson & Woitke, 1997). 이는 개인이 속한 맥락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개인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개인이 인식한 진로장벽은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손은령, 김계현, 2002; 이상희, 2005; Vilacruz, 2003; Sakurako, 2004). 김은영(2001)은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진로장벽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이희정·김금미(2010)도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는데, 자기 이해와 진로 이해 부족 및 자신감 부족과 성격 문제 등의 심리적 진로장벽과 학벌과 전공, 경비와 집안 사정, 부모와 주변인 등의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진로장벽 모두를 포함한다(김수현, 2007). 이 중 환경적인 장벽은 심리적인 장벽과 달리 개인의 진로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다양한 심리적 차원의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이상희, 2006; Lent et al., 2000) 진로 결정 및 준비과정에서 개인의 흥미와 선택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Lent et al., 2001).

같은 연령대나 발달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을 이해하는 것은 진로장벽에 대처하는 방법을 마련해줄는데 도움을 주고, 진로대안을 현실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며(손은령, 2004),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김민정, 2016). 이러한 진로장벽 변인은 본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살펴볼 만 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관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엄태영 외(2011)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의 종단적 관계 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은 진로장벽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라 하였다. 허균(2012)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낮아지며,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를 보고하였다. 김종운, 박성실(2012)도 정서지능은 진로장벽에 부적 직접효과를 미치고, 진로장벽은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을 매개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외에 조춘범·김동기(2010)도 진로를 방해하는 진로장벽 요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남윤주·이숙, 2009; 박은민, 2013). 선남이(2013)는 단지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겪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 등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철원(2013)은 다문화가정 중등생이 초등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으며, 외국인 어머니를 둔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외국인 아버지를 둔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점을 볼 때 외국인 어머니를 둔 중학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진로장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진로결정(김희수, 2005)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 외에 진로장벽을 높이고 진로결정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사회적 위축을 들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3)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청소년들이 상담을 요청한 주요문제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로 나타났다. Wilkinson & Pickett(2018)는 불평등한 사회에

서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아 사회적 불안 또는 지위 불안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불안 증상이 계속되면 사회적으로 위축된다고 하였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 불안감, 움츠림, 긴장감 등의 행동을 보이며(박기원, 2014),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가진다(Nelson, et al., 2005; Rubin & Barstead,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축은 과잉행동, 비행,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 등 외부에 명확히 표출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가진 청소년에 비해 눈에 덜 띄고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다(김은서, 2019). 또한 사회적 위축에 따른 행동 양상은 부모나 교사들이 이들을 단순히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한 성격특성을 간과하기 쉬워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들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허경화, 2002). 다문화청소년은 학교 및 지역 내에서 문화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높은 스트레스 경험은 심화된 사회적 위축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모상현, 2018).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영향을 주어 나타나며(Goodwin, Fergusson & Horwood, 2004), Smith & Betz(2002)는 우울감과 진로결정은 직접적인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우영숙(2019)도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진로장벽은 사회적 위축과 진로결정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기에 사회적 위축은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래 여성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다

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이주하면서 겪는 언어 문제는 한 개인의 혼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따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한국어 사용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언어능력과 자녀의 학습능력, 자녀의 정체성 형성, 자녀의 진로발달,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진숙, 2008; 강정희, 2011; 전정민, 2017; 최선애, 2017). 다른 문화를 가진 가족 구성원간 적응 문제, 양육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국제결혼 어머니의 언어적 부적응은 아동발달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오승환, 2016).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문제가 개인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발달 차이가 사라진다는 연구(우현정 외, 2009; 황혜신·황예정, 2000; 박주희·남지숙, 2010)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아동기를 지난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인 구조모형 속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진행된 연구들도 변수들 간의 단편적인 영향관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 과정이나 경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성과의 구

조적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진로발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대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이들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세워진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은 이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1. 다문화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이제는 다문화배경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8.3%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국내 출생아 중에 다문화 출생아는 18,440명으로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전년보다 0.4% 증가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18. 11. 23). 여기서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로 정의하고 있다.



출처: 통계청(2018)

[그림2-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비중 추이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들 다문화가정의 24세 이하 청소년을 다문화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은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 가정자녀로 구분되며, 한국에서 출생하였는가에 따라 국내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로 분류된다(신예진, 2017). 다문화청소년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다문화청소년의 구분

국제 결혼 가정 자녀	국내 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받음
	중도 입국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 - 국내 입국 시에는 외국 국적이나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 가능
외국인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헌법」 제6조 제2항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년 비준)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 가짐 -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에 따라 거주시설 확인만으로도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

출처 : 김평화(2019)

광의의 범위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기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자원 및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에 따라 그 범위는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양계민 외, 2018).

다문화청소년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다루고 있는 「청소년복지지

원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들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또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등 거주지 학군 안에 있는 여러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동 또는 학생들을 대부분 포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다문화청소년 관련법과 대상 범위

다문화가족 지원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기 자녀
청소년복지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출처: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김주영(2018)

다문화학생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가 다문화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다문화학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국제결

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들 중에서 진로결정을 고민하는 시기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을 다문화청소년으로 한정하여 보고자 한다.

다문화청소년 중에서 현재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2019년 137,225명으로 전체 학생의 2.5%이며, 이는 전년 대비 15,013명, 12.3% 증가한 수치이다.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11.7%가 증가하였는데,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12.3%가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은 중학교는 3,625명이 증가한 21,693명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546명 증가한 11,234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많은 아동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이며, 중학교 재학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더 이상 기존 초등학생 위주의 정책이 아닌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교육부(2019)

[그림 2-2] 다문화 학생 현황

<표 2-3> 다문화 학생 현황('12 ~ '19년)

(단위 : 명)

연도	전체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소계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각종 학교	소계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각종 학교	소계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각종 학교	소계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각종 학교
' 19년	137,225	103,881	21,693	11,234	417	108,069	83,602	15,891	8,464	112	8,697	5,148	2,131	1,220	198	20,459	15,131	3,671	1,550	107
' 18년	122,212	93,027	18,068	10,688	429	98,263	76,181	13,599	8,361	122	8,320	5,023	1,907	1,185	205	15,629	11,823	2,562	1,142	102
' 17년	109,387	82,733	15,945	10,334	375	89,314	68,610	12,265	8,335	104	7,792	4,843	1,722	1,063	164	12,281	9,280	1,958	936	107
' 16년	99,186	73,972	15,080	9,816	318	79,134	59,970	11,475	7,589	100	7,418	4,577	1,624	1,075	142	12,634	9,425	1,981	1,152	76
' 15년	82,536	60,162	13,827	8,146	401	68,099	50,191	11,054	6,688	166	6,261	3,965	1,389	723	184	8,176	6,006	1,384	735	51
' 14년	67,806	48,225	12,506	6,734	341	57,498	41,546	10,316	5,562	74	5,602	3,262	1,386	750	204	4,706	3,417	804	422	63
' 13년	55,780	39,360	11,280	4,858	282	45,814	32,823	9,162	3,793	36	4,922	3,006	1,143	565	208	5,044	3,531	975	500	38
' 12년	46,954	33,740	9,627	3,409	178	40,040	29,282	8,194	2,536	28	4,288	2,669	985	547	87	2,626	1,789	448	326	63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 :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 국내출생 자녀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출처: 교육부(2019)

다문화청소년은 가정과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은 한 가정 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가치관과 행동의 차이로 인한 이중문화특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다문화청소년은 부모님이 자녀양육에 있어 자기문화 관점을 강조하거나,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기는 충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홍봉선, 2015).

둘째, 한국의 일반 학생들과 다른 언어와 문화, 가치관의 차이는 학업능력의 부족, 차별이나 편견, 따돌림으로 인한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적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자신감 결여나 우울 등으로 부적응을 경험할 경우 청소년 시기에 자아정체감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 성장과정에서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적응적 발달특성을 보인다. 이와 관련된 다문화청소년의 중·고등학교 취학률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다문화 청소년의 순취학률(NER)은 중학교 92.8%, 고등학교 87.9%, 고등교육기관 49.6%로 나타난다. 이를 2018년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체 국민의 취학률과 비교해보면, 중학교에서는 5.1%p, 고등학교에서는 4.5%p 낮고, 이러한 격차는 고등교육에서 극대화되어 고등교육의 경우, 국민 전체(67.6%)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의 취학률은 18.0%p가 낮다(여성가족부, 2019).

<표 2-4>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급별 취학률

구분	(단위 : 명, %)					국민전체 취학률 (NER)
	다문화가구 자녀					
	취학적령 인구(A)	총 취학 아동 (B)	해당연령대 취학아동(C)	GER (B/A)	NER (C/A)	
중학교	20,236	19,689	18,789	97.3	92.8	97.9
고등학교	14,165	13,731	12,454	96.9	87.9	92.4
고등교육기관	7,640	3,464	3,792	45.3	49.6	67.6

출처 : 통계청(2018)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보니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취학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69.7%(통계청, 2018)인 우리나라에서 낮은 고등교육 취학률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함으로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들이 다문화청소년의 고등교육 취학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희망교육수준이 낮고, 학업중단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박순희, 2009). 2014년 서울시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1.67%, 중학교 2.01%, 고등학교 0.97%로 평균 1.35%로 나타나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인 1.16% 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다문화 학생의 중학교 학업중단율은 서울시 전체 중학생 학업중단율(1.04%)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혜숙, 2016).

게다가 다문화청소년의 희망교육수준도 청소년 일반(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희망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라는 응답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3.1%에 불과했으나, 다문화청소년은 11.2%로 나타나 거의 4배 가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청소년 일반에 비하여 취약한 환경에 처한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9), 진로정보의 부족, 진로결정에 대한 학습 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체험요소 부족 등 진로지도나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진로는 개인의 전 일생을 통해 일어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기대감을 포함하여 일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기학·한종철, 1997; 육주홍, 2019).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진로결정성(career decision-making)이란 자신이 원하는 진로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확고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 또는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있는가를 뜻한다. 진로결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진로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있어 진로선택에 안정감을 느낀다 할 수 있으며, 진로결정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진로문제와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 혼란을 느낀다(이기학·한종철, 1998).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래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한다(김봉환 외, 1997).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급학교 진학,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이후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 분야의 선택, 대학에서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Crites(1981)에 따르면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진로와 직업선택을 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은 개인의 타고난 성별,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구성요소보다는 진로결정에 대한 학습 부족, 직업정보의 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체험 요소 부족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의 보충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진로결정성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결정,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 직업선택의 확신 여부, 자신의 개인적 상황변화나 기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진로미결정 정도 등 학생들의 학업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의 진행수준과 미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임은미·장선숙, 2004; Harren, 1979). 그러나 진로결정의 문제는 순간의 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전까지 있었던 진로와 관련된 경험과 사고, 그리고 진로관련정보의 수집과 검토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진로에 대한 태도와 지식, 기술 등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손은령, 2002).

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으로 개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 Holland(1980)는 진로정보가 부족하여 진로결정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Sepich(1987)은 자아존중감이 진로미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정윤경(2002)은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이해와 자신감 부족, 직업정보 부족, 불안감, 진로결정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연구하였다. 또한, 박수길(2001)은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개인의 진로결정은 개인적인, 심리적인 요인 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제약이나 기회 구조, 성별 차이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손은령, 2002).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일종의 진로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여 진로선택을 어

롭게 한다. 따라서 진로결정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토할 때는 개인의 내적인 요인은 물론 개인의 진로결정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을 진로장벽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엄태영 외, 2011).

공식적인 직업교육을 통한 진로결정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가족을 비롯해 비공식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구인회, 김순규, 2002),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외국 출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 같은 기회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의 적성, 능력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고, 직업인식 수준 역시 낮으며, 직업탐색정보가 부족하여, 희망직업이 모호하고, 진로대안 영역이 좁으며, 직업포부와 진로결정 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은, 정철영, 이 건남, 2012; 오성배, 서덕희, 2012; 장임숙, 김희재, 2014). 게다가 초 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다문화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하여 진로발달, 진로인식, 진로결정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진로의식발달 수준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것으로 보인다(김민정, 김 미경, 2014; 남부현, 최충옥, 2012; 조봉환, 2011).

또한 다문화학생의 희망직업보다는 부모의 학생희망직업 인지도에 따라 진로활동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님이 다문화학생의 희망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부모님이 자신의 진로를 지지할수록 진로결정성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않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육주홍, 2019).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성은 일반청소년 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이나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제2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 및 특성

어머니는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까지 자녀가 가장 오랫동안 상호 작용하는 사람이므로 자녀의 언어습득에서 부모의 언어능력은 매우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언어능력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박영수, 1996).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을 자각하고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상대를 존중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표현할 수 언어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김영애, 2006).

홍영숙(2007)은 한국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 어머니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문제는 없으나 작문 교육과 문장 이해력이 부족하여 자녀들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김희숙(2015)의 연구에서도 통역 없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없었지만, 본인의 부정확한 발음, 적절하지 않은 단어 사용과 표현이 자녀의 교육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영달(2006)은 농어촌이나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국제결혼가정아동은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한국어능력이 낮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독해, 어휘력, 쓰기 등에서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은혜(2017)는 다문화 가정 내 환경 변인보다 어머니의 한국어 어휘력이 아동의 언어능력과 더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습득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한국문화와 지식습득, 학교생활, 사회활동, 일상활동 등 모든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노동활동에 제약이 따르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어려우며,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Jun 등(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Kim & Lee (2010)의 연구에서는 언어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4-5세 아동 정도의 한국어능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최현욱, 황보명, 2009).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유아나 아동의 언어발달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가 많으나,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청소년의 언어발달이나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제3절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

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타인의 인정, 사회성을 통해 발달되거나 변화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느낀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약점이나 부적절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Coopersmith(1968)는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았다. 자아존중감이 이처럼 자기 자신과 주변의 객관적인 환경 요소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데,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은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며,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한다(김애경, 2001).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이 높고(송승민 · 이유현, 2012), 성장과 발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도 높다(이하리 · 이영선, 2015).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내재화된 문제행동이 감소(오영경 · 이형실, 2010)할 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삶에 대해 진취적으로 만족스러운 태도를 갖게 된다(Battle, 1978; 김평화 2019).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은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을 접했을 때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Rubin, Coplan & Bowker, 2009). 특히,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문제는 개인의 기질적인 것이 아닌 또래관계나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주변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하는 발달맥락적인 환경적 요인의 결과물로서 나타날 수 있다(민원홍·손선옥, 2017). 즉,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은 주로 또래관계에서 거부나 왕따와 같은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소속감이나 유능감을 저하시켜 불안하고 소심한 특성을 가진 사회적 위축의 행동문제로 나타나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이봉주 외, 2014). 따라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내며, 그들의 비전형적인 행동으로 인해 또래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발달적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Bowker, Robin, & Coplan, 2011).

또한, 사회적 위축은 대인관계처럼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일 수 있다.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접하거나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반응을 보이고,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유지하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행동경향을 보인다(모상현, 2018). 우울과 불안에 비해 사회적 위축의 문제는 조용하며 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위축은 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철회하고, 대인관계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 부적응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김선희·김경연,

1998; 박랑규·강우선, 2006; Rubin. & Kenneth., 2004). 특히 청소년 기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관계의 확대라는 발달과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와 같이 극단적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전란영·김희화, 2016)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있어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진로장벽으로 어느 정도 지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있어서 진로장벽 요인을 평가하여 진로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극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향매향 외, 2005).

진로장벽(career barrier)이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및 목표,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황 등을 의미한다(손은령, 2001).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결정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신감, 동기, 직접정보 부족 등의 내적 장벽과 가난이나 차별대우와 같은 외적 장벽 등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Crites, 1969). Swanson & Daniels(1995)은 진로장벽을 진로계획이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라고 정의하였고, 심리적인 특성을 지닌 내적장벽과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외적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측면의 내적 장벽과 환경적 측면의 외적 장벽 모두를 진로장벽으로 보고 있다.

진로장벽은 이분적법 분류, 삼분적법 분류, 다원 분류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중 진로장벽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는 이분적법 분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적 요인은 개인의 특성과 관련하여 자아개념, 가치관, 성취동기 등으로 설명되고

외적 요인은 사회·경제·문화적인 구조, 근무조건, 직장 내 차별 등으로 설명된다(황매향 외, 2011). Swanson과 Tokar(1991)는 진로장벽을 내적·외적 장벽의 두 가지 범주 구분이 아닌 태도장벽, 사회·대인적 장벽, 상호작용적 장벽의 삼분법적 분류로 구분하였다. 태도장벽은 내적인 자아개념, 직업과 흥미에 대한 태도로 분류되며 사회·대인적 장벽은 가족, 미래의 결혼 및 가족계획을 포함한다. 상호작용적 장벽은 연령, 민족, 성별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진로에 대한 교육과 경험 등을 설명한다. 이와는 달리, 다원분류는 이분법이나 삼분법처럼 진로장벽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인이 직업생활 중에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분류하는 체계이다.

Swanson, Daniel & Tokar(1996)는 진로장벽의 하위유형을 학업태도 또는 학업성취에 대한 자신감 부족, 자기이해부족, 성차별, 타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등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Tak과 Lee(2003)가 한국진로미결정검사(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에서 진로장벽을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발달과정에서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지만, 청소년기에는 개인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Cole et al., 2001). Erikson(1963)은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기에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사춘기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지적·신체적·사회적 변화는 초기 청소년들에게 자신은 누구인가 의문을 갖도록 한다고 보았다. 즉, 초기 청소년들은 정체감 위기를 맞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면서 나는 누구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하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어려울 때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며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다.

Kernis(2008)은 자아존중감을 안정적 자존감과 불안정적 자존감으로 나누었다. 불안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손상되기 쉽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아동기와 달리 사회적 관계가 넓어지면서 외부의 사회적 평가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는 자아존중감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민영화(2019)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자신에 관해 관심이 커지는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발달 추이를 비교한 박승민 외(2015)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추이를 연구한 박미정과 유난숙(2017)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청소년기 내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에게도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하다.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남윤주·이숙, 2009; 박은민, 2013).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발달과정과 더불어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중으로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송선진, 2007). 선남이(2013)는 단지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다문화청소년이 사회로부터 차별과 편견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문화 환경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켜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경우, 외국인 아버지를 둔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어머니를 둔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중등생이 초등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경향이 있었다(이철원, 2013). 이는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 국적이나 외국인 여부에 따라 다른 다차원적인 접근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을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반(半)한국인으로 인식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체성의 혼란은 진로결정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진로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성취하는 과정이면서 또한 자신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정체성의 확립은 진로결정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체성이 낮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크게 느끼는 개인들은 진로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보

이며 직업을 회피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의 부족 등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배상률, 2016).

이처럼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별 경험이나 외국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문제와 같은 다문화청소년의 특수한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사춘기라는 발달 과정이 함께 맞물리면서 다문화청소년들은 정서적 혼란과 함께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다.

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기 이해, 우울, 불안이 영향을 주어 나타나며, 은둔형 외톨이,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대인관계, 행동문제 등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Goodwin, Fergusson, & Horwood, 2004; 정경미 외, 2013) 심리사회적 부적응 및 정신장애의 주요 위험요소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Rubin et al., 2009). 김보영과 장은비(2015)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은 우울증을 강력하게 예측하고, 우울을 통해 진로정체감 형성을 저해한다고 밝혔으며, 장기적으로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전란영·김희화, 2016).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우지희(2016)는 사회적 위축을 경험한 청소년은 우울 성향이 유발되고 진로정체감 형성이 방해된다고 하였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의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우울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소극적인 사회생활과 결혼이나 출산, 안정적인 경력을 가지는 것과 같은 인생의 중요 발달과업에서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다(Rubin et al., 1995; Kerr et al., 1996). 허인영(2015)은 아동보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위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또래관계 문제 외에도 학업성취도가 낮고, 교사와 원만한 소통을 하지 못하며,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더 경험한다고 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위 친구들과 다른 외모로 인한 차별, 언어장벽, 문화적 소외감 등으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로 인해 심한 사회적 위축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위축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재화될 경우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스스로 고립시키게 된다(모상현, 2018).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스스로 고립하게 된 다문화청소년들은 우울감, 절망감, 또래관계 형성, 사회관계 유지, 진로결정 등에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고유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연구는 외현화 문제에 비해 양육자와 교육자로부터 잘 탐색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부적응 현상 가운데 우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결과가 많지 않다(Rubin et al., 1995). 그렇지만, 사회적 위축은 시간적, 상황적 변화에도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Rubin et al., 2009)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김후남, 2018).

4.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초기의 연구자들은 진로장벽을 개인이 직면하였을 때 극복할 수 없는 변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지만(Lynn et al., 1979), 이후 진로장벽을 변화가능한 것으로 보고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다르게 지각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지각체계와 환경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wanson & Gore, 2000).

진로장벽은 고학년이 될수록 더욱 크게 지각하게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자신감과 자기이해의 부족, 성역할 갈등,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시 타인과의 갈등, 진로에 대한 고민, 직업정보의 부족 등을 장벽으로 지각하게 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보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장벽을 지각하게 된다. 자기이해의 부족에 대한 장벽 지각은 학년이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황매향 외, 2005).

또한, 김은영(2001)은 한국 대학생은 자기명확성이 부족할수록, 공부에 흥미를 못 느낄수록,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을수록, 직업정보가 부족하고, 대인관계 형성이 힘들고, 타인과의 갈등, 신체적 열등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낄수록 진로장벽이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였고, 이 요인들은 내·외적 통제, 진로성숙도, 특성불안, 자기효능감과 관계있음을 보고하였다. 김민정(2016)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높은 집단이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낮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Sakurako(2004)는 일본의 여대생 대상 연구에서 진로장벽을 크게 지각할수록 삶에 대한 긍정성과 미래 직업성취에 대한 희망이 낮아

져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하였고, Stephen 등(2014)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은 개인의 성격과 함께 개인의 진로의사결정과 학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정은영(2013)의 연구에서도 진로장벽의 지각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의 합리성은 낮아지고 진로선택이 편협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Swanson and Tokar(1991)는 남녀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남녀가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의 진로장벽을 지각하지만 일부 진로장벽은 남녀가 인식하는 중요도가 다를 것을 보고하였다. Luzzo(1996)도 미국의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진로장벽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보다 더 많은 비율의 여학생들이 가족관련 진로장벽을 제시하였다(황매향 외, 200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설명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진로포부를 제한하기 시작하고(김영은 외, 2012), 일반 학생들에 비해 낮은 직업포부 수준을 보이며(임경희, 2013), 진로장벽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양계민 등, 2016; 이지민·오인수, 2013), 직업탐색과 진로계획에 대해 진로발달 정도가 낮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부현·최충옥, 2012). 이아라 등(2018)의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가치관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직업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실패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며, 미래 직업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이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낮은 학업성취와 언어적 어려움, 낮은 자신감 역시 이들의 진로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고 학업성적이 낮으며, 진로탐색정보가 부족하고, 경제적 지위가 다소 낮은

편에 속해 높은 진로장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현철 외, 2015; 최선애, 2017).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은 낮은 진로발달수준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4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과 진로결정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 간 관계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간 관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한국어 사용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언어능력과 자녀의 학습부진에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조영달 외, 2008; 원진숙, 2008; 윤희원, 2008, 강정희, 2011).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유아기를 거쳐 학령기로 성장하면서 한정된 수준의 한국어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 어머니와 점점 소통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어머니와의 언어격차는 감정 소통의 단절로 이어져 자칫 가정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힘든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체성의 혼란과 같은 힘든 청소년기를 보낼 수도 있다(전정민, 2017).

Ma and Yeh(2005)의 미국 내 중국계 이민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사용능력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영어 활용능력이 높고 부모로부터 진로결정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받을수록 높은 진로발달 정도를 보이고, 낮은 영어 활용능력과 학업에 어려움을 가진 이민자 학생은 진로결정 정도가 낮고 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보다 직업 세계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선애(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하는 다문화학생 그룹은 학생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나의 흥미와 적성, 나의 미래직업, 학교 및 학과선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아동의 언어발달과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아동이 아닌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지연을 보고한 다양한 선행연구(오성배, 2007; 정은희, 2004; 안원석, 2007; 천숙향, 2009; 황상심, 2009)와 달리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령전기 아동의 언어능력이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황혜신·황혜정, 2000; 우현정 외, 2009).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들의 언어발달 차이가 사라진다는 Genesee, Nicolados & Paradise(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문화아동의 언어문제가 개인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기에 발달수준에 적절한 언어교육이 추가적으로 병행된다면 일반아동들과의 격차는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박주희·남지숙, 2010).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동기를 넘어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도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해보았다.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 간 관계

Bandura(1986)의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서는 진로에 대한 흥미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의해 단순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 요인, 맥락적 요인과 직·간접적인 학습경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학습경험, 자아효능감, 결과기대들, 맥락적 요인, 목표가 중요한 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학습경험을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자아효능감을 자아존중감, 결과기대는 사회적 위축, 맥락적 요인은 지각된 진로장벽, 목표는 진로결정성으로 매칭하여 연구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이중 언어 사용 환경 속에서 언어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강성률, 2009).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다문화청소년들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자기비하와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이재분, 2010).

문형란(2016)은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언어능력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숙(2010)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동이 인지한 가족관계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능력이 유아의 불안과 사회적 위축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친사회적인 행동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수, 2009).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대영(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하고,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경우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언어장벽이 존재함에 따라 일반가정에 비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 진로장벽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지민, 2013).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하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요인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3.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성 간 관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성경 외(2005)의 연구에서 학업우수 여자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였다. 양미진 외(2010)은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인지적 혼란이 일부 나타났으며, 정서적으로는 분노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최경원(2012)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신호정·이문희(2011)는 진로성숙 발달에 대한 청소년 종단연구에서 우울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성숙도 발달이

느리며,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는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진로결정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문제는 다시 진로선택,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윤정, 2014).

Smith & Betz(2002)는 우울감과 진로결정은 직접적인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Rubin & Coplan(2004)은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불안과 공포감, 우울감 및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문제와 연관된다고 연구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아 다문화청소년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엄태영 외(2011)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진로장벽 정도가 낮아지고, 진로장벽 정도가 낮아질수록 진로결정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장벽 요인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청소년의 진로장벽 요인을 완화시켜 이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애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문정·나운환(2013)도 장애청년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우영숙(2019)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진로장벽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은 낮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진로장벽은 우울, 사회적 위축과 진로결정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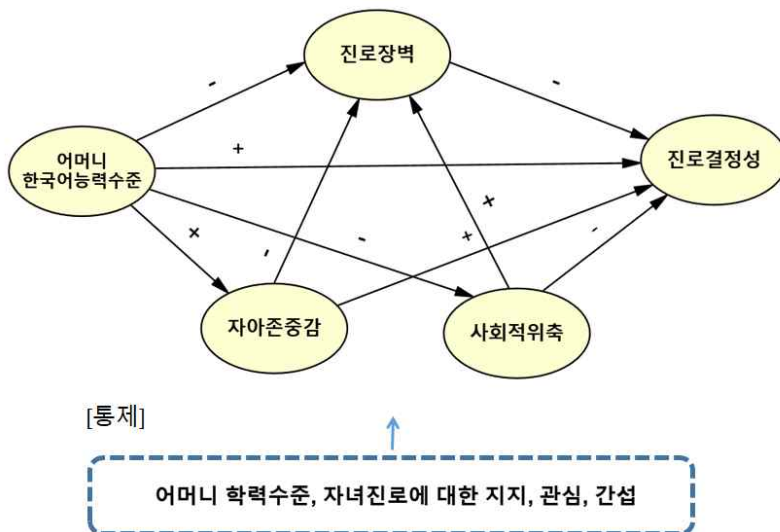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사회적 위축은 진로장벽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성은 부적 상관관계의 영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까지 한꺼번에 본 연구는 없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과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의 매개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을 두고 구조분석하였다.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자녀의 진로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제시된 관계에서 자녀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이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을 것이다.

2-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낮아질 것이다.

2-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

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3-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과 다문화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4.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은 이중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4-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진로장벽은 낮아져서 진로결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5.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진로장벽은 이중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5-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낮아지고, 진로장벽도 낮아져서 진로결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제2절 분석대상 및 표집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6차년도(2016년도) ‘청소년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현 시점에서 연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장 최근 데이터는 6년차 조사 자료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6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투입하여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는 다문화청소년의 배경특성, 학교생활, 심리사회적응과 신체발달, 부모-자녀관계, 진로의식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객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2018년까지 8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종단조사이다. 아동 패널 선정 기준이 되는 학년을 4학년으로 본 것은, 일반적으로 만9~10세가 되는 4학년은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와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6차년도 본 조사(2016년)의 대상은 중학교 3학년이며, 해당 조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대상을 국제결혼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 모두 포함하였지만, 모집단 분포를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부분이어서 주요 패널을 국제결혼가정자녀로 구성한 패널데이터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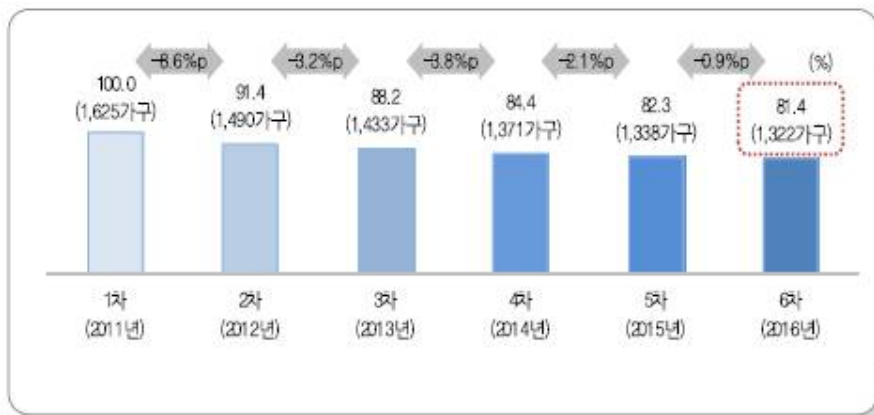
표본추출 틀은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각 지방 교육청의 초등학교

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 리스트를 참고하였고, 자료가 미제공된 4개 시/도의 경우 2010년 기준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조사모집단은 전국 2,537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4,452명(2011년 기준)이며, 표본추출방법으로 층화임의 추출법,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고 데이터의 신뢰성과 예산을 고려하여 이중 1,625가구, 1,635명을 표본추출하였다. 표본추출률은 3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수준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표 3-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표본설계 내역

분류	내용
모집단 및 표본 추출률	① 목표 모집단 :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 ② 조사 모집단 :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학부모 ③ 표본추출률 -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족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리스트 - 2011년 4월 기준, 각 지방 교육청의 학교 리스트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1,625가구(2011년도 패널 구축 당시)/1,322가구 (2016년 10월 기준)
표본추출 방식 (층화,특성, 분류지표 포함)	① 층화 : 16개 시도 ② 표본 추출단위(2011년 당시) - 1차 : 학교 - 2차 : 학교 내 다문화가족 4학년 학생 전수 ③ 표본추출 : 확률비례추출
표본배정방식	비례배분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6년차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는 2016년 중학교 3학년이 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포함된 1,322가구(청소년 1,329명, 부모-주로 어머니 1,301명)가 참여하였다. 6차례 패널 추적 조사를 하면서 이민, 유학, 연락두절, 바쁨 등의 사유로 2011년도 표본 추출한 1,625가구보다 수는 줄었지만, 다문화청소년 패널유지율은 2016년 81.4%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출처: 양계민 외(2016)

[그림 3-2] 다문화청소년 패널 유지현황

한편 6차년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패널의 전체 1,322 가구 중 외국인 어머니를 둔 가구가 1,283 가구로 나타나 어머니만 외국인일 경우로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 1,283명을 본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6차년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는 SPSS 21과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모든 결과는 통계적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 순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등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고자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측정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확인을 통해 단변량 정규 분포성을 검토하였으며,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넷째, 관측변수가 모형의 잠재변인들을 잘 대변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잠재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은 구조모형 설정, 모수추정, 모형 적합도 평가, 경로계수 확인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모수추정은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과 진로장벽이 있는 이중 매개 모델이다.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Phantom) 변수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각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와 크기와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진로결정성은 이기학, 한종철(1997)에서 발췌한 진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관련 항목으로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등의 10문항으로 진행되었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4점 척도(4: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1: 매우 그렇다)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채점 문항은 역점수화 처리 하여 연구모형에 활용하였으며, 문항 간 신뢰도는 0.89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문항을 모두 분석에 투입하기에는 변수의 수가 너무 많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2개 문항으로 재구분되었다. 진로결정성에 대한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3-2>와 같다.

<표 3-2> 진로결정성의 척도와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구성	신뢰도
진로결정성	10	1, 2*, 3, 4*, 5*, 6*, 7, 8, 9*, 10*	0.89
진로결정성1	4	1, 3, 7, 8	.754
진로결정성2	6	2, 4, 5, 6, 9, 10	

* 역채점 문항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변수의 값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패널자료에서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영역을 각각 ‘전혀 못 한다’, ‘못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 한다’로 네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본 변수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독립변수의 척도와 문항

(N=1,283명)

문항	척도	신뢰도
어머니의 한국어(말하기) 능력	1. 전혀 못 한다 2. 못하는 편이다 3. 잘하는 편이다 4. 매우 잘 한다	0.90
어머니의 한국어(쓰 기) 능력		
어머니의 한국어(읽 기) 능력		
어머니의 한국어(듣 기) 능력		

3. 매개변수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백난숙, 오경자(1992)에서 발췌한 자아존중정도 관련 항목으로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등의 4문항으로 진행되었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4점 척도(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3-4>와 같다.

<표 3-4> 자아존중감의 척도와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구성	신뢰도
자아존중감	4	1,2,3,4	0.85

2)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 김경연(1998)을 수정보완한 이경상 외(2011)에서 발췌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관련 항목으로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의 5문항으로 진행되었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4점 척도(4: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1: 매우 그렇다)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심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축에 대한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3-5>와 같다.

<표 3-5> 사회적 위축의 척도와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구성	신뢰도
사회적 위축	5	1,2,3,4,5	0.91

3)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이은설(2005)에서 발췌한 진로, 직업 관련 생각 및 태도 항목에서 요인별로 3개씩 선정하였다. 자기이해부족 항목으로는 ‘나는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등의 3문항이며,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항목으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3개 문항이고, 경제적 어려움 항목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원하는 학원(과외)에 다닐 형편이 안돼서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등의 3문항으로 진행되었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4점 척도(4: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1: 매우 그렇다)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는 0.90이다. 진로장벽에 대한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3-6>과 같다.

<표 3-6> 진로장벽의 척도와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구성	신뢰도
자기이해부족	3	1,2,3	-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3	4,5,6	-
경제적 어려움	3	7,8,9	-
전 체	9		0.90

4. 통제변수

본 연구모형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자녀진로에 대한 지지, 간섭, 그리고 관심부족 등의 변인(안수미·김미화, 2018; 최수미·이동혁, 2017; 이주희·문은미, 2011)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수와 앞서 제시된 통제변수들 간의 유의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어머니의 학력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은 부모의 자녀진로에 대한 지지, 간섭, 관여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변수들만 다시 통제하여 연구모형에 반영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었지만(김민정·박소영, 2017; 김지연·이기학, 2014) 본 연구에서 활용한 다문화청소년패널데이터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변인들이었다. 가구소득 또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로 파악되어지고 있으나 다문화청소년패널데이터 자료에는 가구소득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3-7> 통제변수의 척도와 문항구성1

문항	척도	신뢰도
어머니 학력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학(2~3년제)졸업 4. 대학교(4년제)졸업 5.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0.90

<표 3-8> 통제변수의 척도와 문항구성2

문항		척도	신뢰도
어머니의 진로 관련 행동			
지지	▪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격려해주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0.87
	▪ 나에게 가능한 진로들의 선택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		
	▪ 진로분야의 체험기회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해주신다.		
간섭	▪ 나의 진로에 대해 너무 많이 간섭하신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0.74
	▪ 나의 진로를 당신의 생각대로 이루어도 하신다.		
	▪ 나의 진로를 특정 방향으로 강요하려 하신다.		
관여 부족	▪ 나의 진로에 관심이 없으시다.	4. 매우 그런 편이다	0.84
	▪ 너무 바빠서서 나의 진로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다.		
	▪ 직장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진로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으시다.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남자가 650명으로 50.7%, 여자가 633명으로 49.3%를 차지하여 여학생이 조금 더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연령 평균은 14.97세며 표준편차는 0.36이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의 부모님 학력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148명(11.1%), 고등학교 졸업 604명(47.0%), 대학 2~3년제 졸업 328명(25.6%), 대학 4년제 졸업 201명(15.9%), 대학원 졸업 8명(0.6%)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387명(30.2%), 고등학교 졸업 660명(51.4%), 대학 2~3년제 졸업 86명(6.7%), 대학 4년제 졸업 125명(9.7%), 대학원 졸업 11명(0.9%)로 나타나 아버지 역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의 학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 출신국을 살펴보았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 어머니의 출신국 중 중국 출신국은 한족과 조선족으로 나뉘었다. 한족 출신은 92명(7.2%), 조선족 출신은 244명(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다문화 청소년 어머니의 출신국은 베트남 34명(2.7%), 필리핀 341명(26.6%), 일본 456명(35.5%), 태국 50명(3.9%), 기타 66명(5.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다문화 청소년 어머니의 출신국 비율은 일본, 필리핀, 조선족, 한족, 태국, 베트남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거주 지역 규모를 확인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336명(26.2%), 중소도시 579명(45.1%), 읍/면 368명(28.7%)으로 나타나 중소도시 거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1,283)

항목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650	50.7	-	-
	여자	633	49.3		
연령	14세	99	7.7	14.97	0.36
	15세	1137	88.6		
	16세	42	3.3		
	17세	5	.4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142	11.0	-	-
	고졸	604	47.0		
	대학(2-3년제 졸)	328	25.6		
	대학교(4년제 졸)	201	15.9		
	대학원 졸	8	0.6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87	30.2	-	-
	고졸	660	51.4		
	대학(2-3년제 졸)	86	6.7		
	대학교(4년제 졸)	125	9.7		
	대학원 졸	11	0.9		
	무응답	14	1.0		
어머니 출신국	중국(한족)	92	7.2	-	-
	중국(조선족)	244	19.0		
	베트남	34	2.7		
	필리핀	341	26.6		
	일본	456	35.5		
	태국	50	3.9		
	기타	66	5.1		
거주 지역	대도시	336	26.2	-	-
	중소도시	579	45.1		
	읍/면	368	28.7		

제2절 관측변인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증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의 4개 영역에서 측정되었으며, 최솟값 1에서 최댓값 4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진로장벽을 구성하는 관측변인인 진로장벽1, 진로장벽2, 진로장벽3은 각각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4점 척도로 구성된 세 가지 문항을 합산한 값이다. 따라서 각 항목의 최솟값은 3이고 최댓값은 12이다. 사회적 위축 및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 각각 5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진로결정성은 원 척도 10문항을 요인분석 실시 후 2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다루는 주요 변인의 관측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값의 결과는 다음 <표4-2>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각 요인별로 기술통계를 시행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료의 이상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절댓값 2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관측변인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증 결과

항목		N	Mean	SD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	모 말하기 능력	1279	3.37	.567	2	4	-.204	-.758
	모 읽기 능력	1279	3.05	.702	1	4	-.176	-.624
	모 쓰기 능력	1279	3.22	.646	1	4	-.303	-.462
	모 듣기 능력	1279	3.34	.572	2	4	-.182	-.694
진로 장벽	진로장벽1	1283	6.4	2.2	3	12	0.02	-0.56
	진로장벽2	1283	6.7	2.2	3	12	-0.21	-0.63
	진로장벽3	1283	6.0	1.9	3	12	0.03	-0.26
사회적위축	사회적위축1	1283	2.3	0.9	1	4	-0.01	-0.55
	사회적위축2	1283	2.4	0.8	1	4	-0.23	-0.65
	사회적위축3	1283	2.2	0.9	1	4	0.20	-0.68
	사회적위축4	1283	2.3	0.8	1	4	-0.17	-0.78
	사회적위축5	1283	2.4	0.9	1	4	0.04	-0.7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	1283	3.2	0.6	1	4	-0.39	-0.10
	자아존중감2	1283	3.4	0.6	1	4	-0.28	0.01
	자아존중감3	1283	2.7	0.8	1	4	-0.05	-0.70
	자아존중감4	1283	3.3	0.6	1	4	-0.38	0.10
진로 결정성	진로결정성1	1283	2.59	.67	1	4	.004	-.154
	진로결정성2	1283	2.58	.61	1	4	.470	-.013

2. 관측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 관측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 내 관측변인은 자기변인과는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타 항목 간 관측변인 간의 상관관계 역시 대부분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어머니 한국어 능력 수준 관측변인들은 사회적 위축 및 진로결정성 일부 관측변인들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모형에서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구성된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인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상관계수 값이 0.8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세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4-3>과 같다.

<표 4-3> 관측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 결과

구분		어머니 한국어능력 수준				진로장벽			사회적위축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성	
		1	2	3	4	1	2	3	1	2	3	4	5	1	2	3	4	1	2
어머니 한국어 능력 수준	1	1																	
	2	.667 ***	1																
	3	.710 ***	.771 ***	1															
	4	.765 ***	.653 ***	.723 ***	1														
진로 장벽	1	-.098 ***	-.099 ***	-.117 ***	-.121 ***	1													
	2	-.115 ***	-.109 ***	-.131 ***	-.134 ***	.776 ***	1												
	3	-.175 ***	-.174 ***	-.170 ***	-.180 ***	.466 ***	.516 ***	1											
사회적 위축	1	-.021 ***	-.080 ***	-.048 ***	-.073 ***	.261 ***	.264 ***	.190 ***	1										
	2	-.014 ***	-.036 ***	-.007 ***	-.038 ***	.188 ***	.192 ***	.184 ***	.643 ***	1									
	3	-.063 **	-.086 ***	-.056 **	-.096 ***	.320 ***	.334 ***	.269 ***	.601 ***	.642 ***	1								
	4	-.032 ***	-.052 ***	-.022 **	-.064 **	.242 ***	.265 ***	.214 ***	.622 ***	.832 ***	.708 ***	1							
	5	-.026 *	-.064 *	-.034 *	-.037 *	.261 ***	.285 ***	.217 ***	.619 ***	.643 ***	.681 ***	.702 ***	1						
자아 존중감	1	.166 ***	.130 ***	.154 ***	.143 ***	-.335 ***	-.327 ***	-.307 ***	-.227 ***	-.138 ***	-.255 ***	-.169 ***	-.226 ***	1					
	2	.182 ***	.133 ***	.153 ***	.140 ***	-.314 ***	-.287 ***	-.298 ***	-.227 ***	-.125 ***	-.219 ***	-.169 ***	-.193 ***	.781 ***	1				
	3	.124 **	.147 ***	.130 ***	.148 ***	-.272 ***	-.293 ***	-.231 ***	-.315 ***	-.258 ***	-.356 ***	-.301 ***	-.386 ***	.483 ***	.448 ***	1			
	4	.187 ***	.186 ***	.183 ***	.168 ***	-.329 ***	-.310 ***	-.289 ***	-.262 ***	-.173 ***	-.286 ***	-.219 ***	-.292 ***	.630 ***	.601 ***	.557 ***	1		
진로 결정성	1	.057 *	.059 *	.060 *	.076 **	-.515 **	-.464 **	-.229 **	-.132 **	-.101 **	-.135 **	-.123 **	-.134 **	.185 **	.167 **	.171 **	.220 **	1	
	2	.078 **	.080 **	.108 **	.092 **	-.635 **	-.572 **	-.347 **	-.191 **	-.143 **	-.201 **	-.179 **	-.187 **	.203 **	.178 **	.155 **	.231 **	.608 **	1

* $p < .05$, ** $p < .01$, *** $p < .001$

제3절 측정모형 분석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각 항목들이 잠재변수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변인이 관측변인을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이라고 한다. 측정모형의 카이스퀘어 값은 871.262이고 자유도는 125이다.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분적합지수인 NFI, TLI, CFI, 그리고 절대적합지수인 RMSEA를 확인하였다. 중분적합지수는 0.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Bentler, 1990), RMSEA는 0.05이하이면 매우 좋은 모형으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2).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NFI는 .938, TLI는 .927, CFI는 .947로 나타나 모두 적합성 판단 기준인 0.90 초과하여 본 모형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RMSEA는 0.068로 .05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하고 본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5>와 같다.

<표 4-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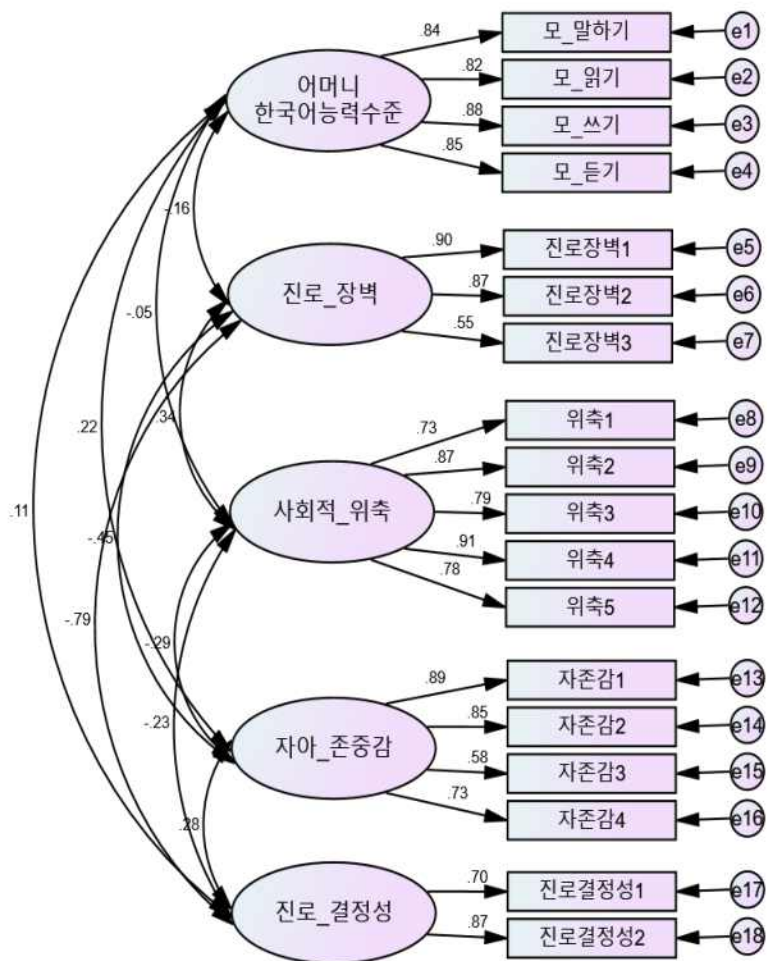
χ^2	df	NFI	TLI	CFI	RMSEA
871.262	125	0.938	0.927	0.947	0.068

1) 개념타당도 분석

다음으로는 측정 모형의 개념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측변인의 요인적재량을 확인하였다.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들의 요인적재량은 0.44 ~ 0.90에 해당되어 집중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4-6>, [그림 4-1]와 같다.

<표 4-6> 잠재변인별 관측변인 요인적재량 분석 결과

경로구분		B	β	S.E	C.R
어머니 한국어능력수준	→ 모 말하기능력	1	0.841	-	-
	→ 모 읽기 능력	1.209	0.822	0.035	34.916
	→ 모 쓰기 능력	1.188	0.877	0.031	38.358
	→ 모 듣기 능력	1.011	0.843	0.028	36.216
진로장벽	→ 진로장벽1	1	0.896	-	-
	→ 진로장벽2	0.962	0.865	0.025	37.862
	→ 진로장벽3	0.531	0.555	0.025	20.971
사회적위축	→ 사회적위축1	1	0.726	-	-
	→ 사회적위축2	1.181	0.873	0.038	30.866
	→ 사회적위축3	1.084	0.786	0.039	27.741
	→ 사회적위축4	1.233	0.914	0.038	32.207
	→ 사회적위축5	1.114	0.784	0.04	27.658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1	1	0.887	-	-
	→ 자아존중감2	0.866	0.853	0.024	36.311
	→ 자아존중감3	0.886	0.58	0.04	21.964
	→ 자아존중감4	0.826	0.732	0.028	29.885
진로결정성	→ 진로결정성1	1	0.697	-	-
	→ 진로결정성2	1.139	0.871	0.05	22.589



Chi-square=875.436 df=125 p=.000
 NFI=.938 TLI=.935 CFI=.947
 RMSEA=.068

[그림 4-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판별타당도 분석

다음으로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든 변인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상관계수의 절댓값은 0.08 ~ 0.62로 모두 0.8 이하이다. 이를 통하여 잠재변수들 간의 측정치에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표 4-7> 잠재변인 상관분석 결과

구분	잠재변인 상관분석				
	어머니 한국어능력수준	진로장벽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성
어머니 한국어능력수준	1				
진로장벽	-.175 ***	1			
사회적 위축	-.064 *	.330 ***	1		
자아존중감	.209 ***	-.422 ***	-.334 ***	1	
진로결정성	.098 ***	-.621 ***	-.198 ***	.253 ***	1

* $p < .05$, ** $p < .01$, *** $p < .001$

제4절 구조모형 분석 결과 및 가설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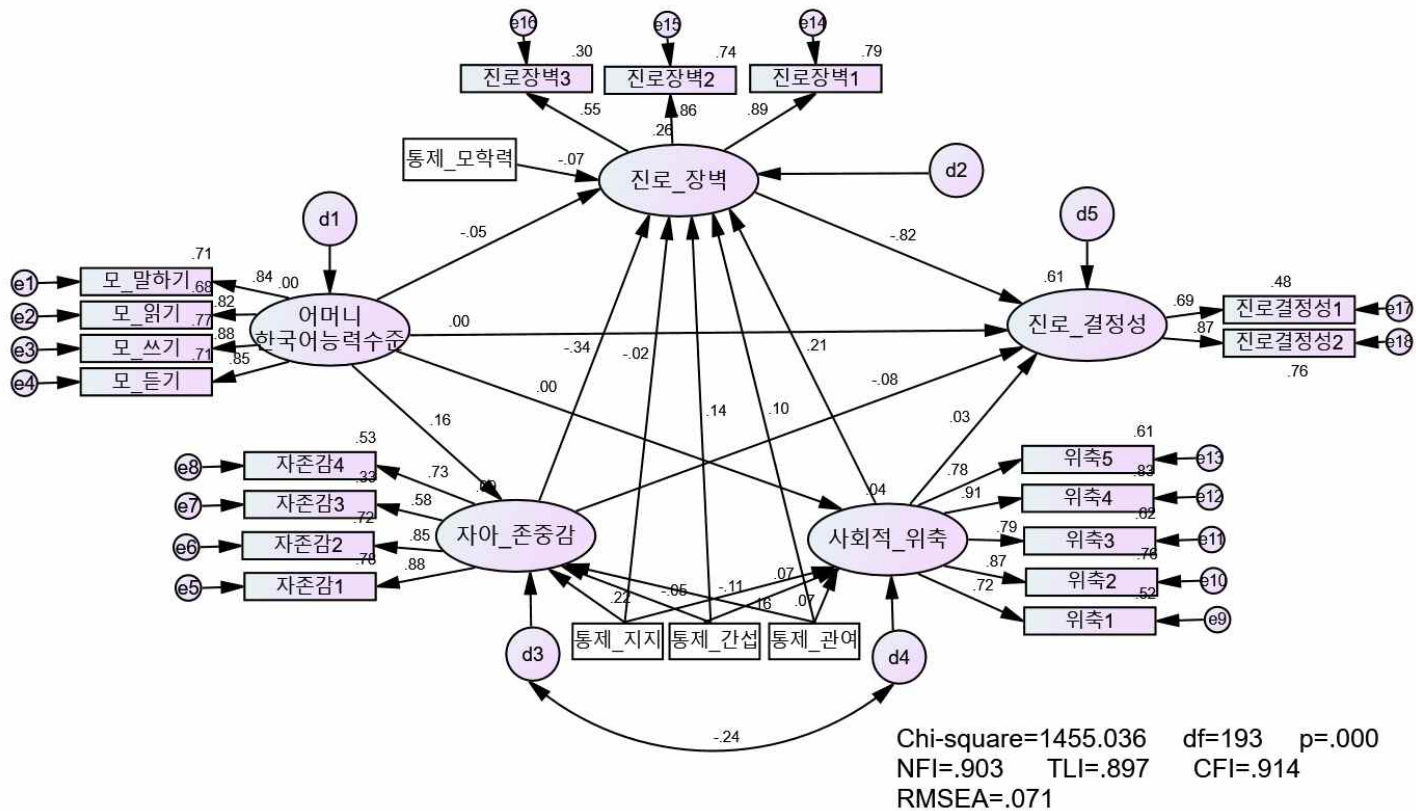
1.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1458.072(df=195, p<.001)$, NFI= .903, TLI= .898, CFI= .914, RMSEA=.071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모형 적합도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형 수정 지수 확인을 통해 모형 수정 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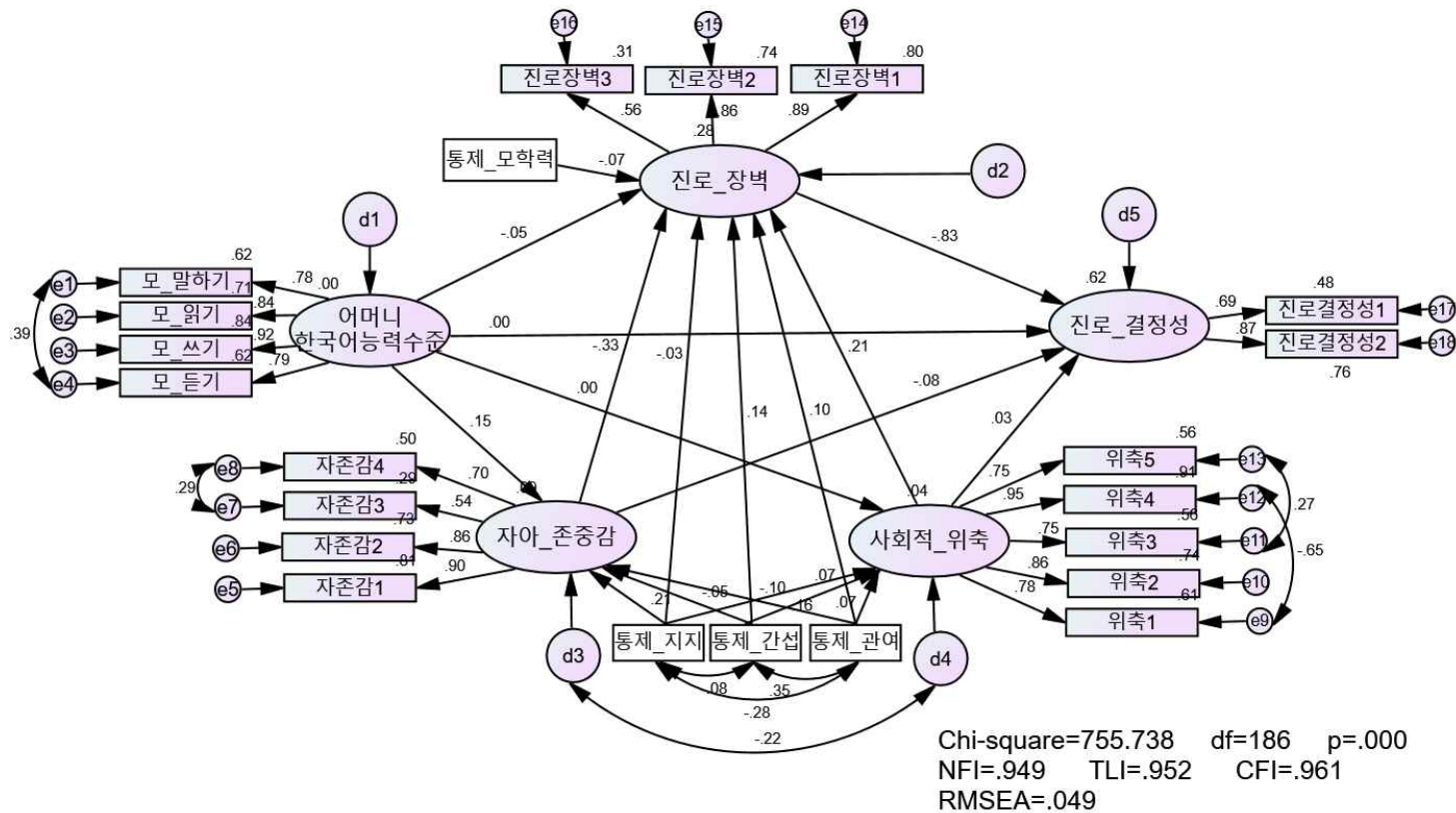
모형 수정 결과, $\chi^2=758.847(df=188, p<.001)$, NFI= .949, TLI=.952, CFI= .961로 전반적인 적합도가 높아졌고, RMSEA도 .049로 적합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모형보다 관측변인 간 상관을 연결한 수정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수정모형으로 본 분석을 진행하였다. 초기 구조모형 및 수정 구조모형의 적합도 비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8>과 같다. 또한 초기 구조모형 및 적합도 지수는 제시된 [그림 4-2], 수정 구조모형 및 적합도 지수는 [그림 4-3]과 같다.

<표 4-8> 초기 구조모형과 수정 구조모형의 적합도 비교

	χ^2	df	NFI	TLI	CFI	RMSEA
초기모형	1455.036	193	.903	.897	.914	.071
수정모형	755.738	186	.949	.952	.961	.049



[그림 4-2] 초기 구조모형



[그림 4-3] 수정 구조모형

2. 구조모형 경로계수 분석

구조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이후, 구조모형의 직접경로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의 방향으로, 진로장벽에는 부(-)의 방향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자녀의 사회적 위축 및 진로결정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성에 부(-)의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위축은 진로장벽에 정(+의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진로결정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성은 부(-)의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9>와 같다.

<표 4-9> 구조모형의 직접경로 분석 결과

경로		B	β	SE	C.R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 자아존중감	0.18	0.147	0.037	4.901***
	→ 사회적위축	0.001	0.001	0.042	0.001
	→ 진로 장벽	-0.121	-0.053	0.063	-1.905*
	→ 진로결정성	-0.001	-0.001	0.026	-0.033
자아존중감	→ 진로 장벽	-0.62	-0.335	0.063	-9.908***
	→ 진로결정성	-0.069	-0.082	0.025	-2.799**
사회적위축	→ 진로 장벽	0.323	0.208	0.046	6.991***
	→ 진로결정성	0.019	0.026	0.018	1.013
진로장벽	→ 진로결정성	-0.374	-0.826	0.025	-15.133***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의 내용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10>과 같다.

<표 4-10> 구조모형의 직접경로와 가설검증

경로		가설검증	
독립변인	→ 종속변인	연번	검증
어머니 한국어능력 수준	→ 진로결정성	가설 1	기각
	→ 자아존중감	가설 2-1	채택
	→ 사회적위축	가설 2-2	기각
	→ 진로장벽	가설 2-3	채택

3. 매개효과 분석

<표 4-11> 최종 모형의 직·간접·총 효과 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독립변인	→ 종속변인	B	β	B	β	B	β
어머니 한국어능력 수준	→ 자아존중감	.18*	.147			.18*	.147
	→ 사회적위축	.000	.000			.000	.000
	→ 진로장벽	-.121*	-.053	-.112*	-.049	-.232*	-.102
	→ 진로결정성	-.001*	-.001	.075*	.073	.074*	.072
자아존중감	→ 진로장벽	-.62*	-.335			-.62*	-.335
	→ 진로결정성	-.069*	-.082	.232*	.277	.164*	.195
사회적위축	→ 진로장벽	.323*	.208			.323*	.208
	→ 진로결정성	.019	.026	-.121*	-.172	-.103*	-.145
진로장벽	→ 진로결정성	-.374*	-.826	-	-	-.374*	-.826

* $p<.05$, ** $p<.01$, *** $p<.001$

<표 4-11>은 최종 구조모형의 직·간접·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모형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에는 직접 효과를 가지며, 자녀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성에는 직·간접 효과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는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사회적 위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진로장벽에는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까지 모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로결정성에는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간접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이들의 진로장벽에 직접효과를, 진로결정성에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녀의 사회적 위축은 이들의 진로장벽에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로결정성에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성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설정한 ‘경로 1’이 기각되면서 [가설 1] 역시 기각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다시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경로 2’이 확인되면서 [가설 3-1]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은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적 위축 역시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은 자녀의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경로 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설 3-2]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은 진로장벽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고, 다시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진로장벽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설정한 ‘경로 4’가 확인되면서 [가설 3-3]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장벽에 다시 부적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진로장벽은 다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의 이중 매개를 통해 최종 자녀의 진로결정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과 자녀의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 있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의 이중매개를 가질 것’이라는 ‘경로 5’가 확인되면서 [가설 4]가 채택되었다.

여섯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은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회적 위축은 진로결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녀의 사회적 위축은 진로장벽에는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성에는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사회적 위축은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진로장벽을 매개로 할 때는 간접적으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과 진로결정성 사이에서 사회적 위축과 진로장벽의 이중매개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 ‘경로 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본 연구의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아래 <표 4-13>은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에 대한 가설 기각 및 채택 여부를 표시한 것이다.

[가설 4], [가설 5]의 이중 매개효과 검증은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

향을 주지 않는 팬텀(Phantom) 변수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4-12> 이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B	β	SE	C.R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자아존중감→ 진로장벽→진로결정성	0.051	0.039	0.013	1.571***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사회적위축 →진로장벽→진로결정성	0.014	0.011	0.007	3.660

* $p<.05$, ** $p<.01$, *** $p<.001$

<표 4-13> 개별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가설 검증	
	연번	검증
경로 1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 진로결정성	가설1	기각
경로 2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 자아존중감 → 진로결정성	가설3-1	채택
경로 3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 사회적위축 → 진로결정성	가설3-2	기각
경로 4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 진로장벽 → 진로결정성	가설3-3	채택
경로 5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 자아존중감 → 진로장벽 → 진로결정성	가설4	채택
경로 6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 사회적위축 → 진로장벽 → 진로결정성	가설5	기각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인종, 성별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진로장벽과 같은 맥락적 요인,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은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며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본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데이터인 6차년도 조사자료 중 연구모형에 활용한 모든 문항에 답한 1,283명을 최종적인 조사참여자로 삼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고,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가설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가설1)’에 관한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가설2-1), 사회적 위축(가설2-2), 진로장벽(가설2-3)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셋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가설3-1), 사회적 위축(가설3-2), 진로장벽(가설3-3)의 매

개효과가 나타나는지(가설3)’에 관한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의 이중매개 효과가 나타나는지(가설4)’이다. 다섯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진로장벽의 이중매개 효과가 나타나는지(가설5)’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주요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각 요인별로 기술통계를 시행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 분석을 한 결과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절댓값 2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음으로 관측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항목 내 관측변인은 자기변인과는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타 항목 간 관측변인 간의 상관관계 역시 대부분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각 항목들이 잠재변수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변인이 관측변인을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중분적합지수인 NFI, TLI, CFI, 그리고 절대적합지수인 RMSEA를 확인하였다. 중분적합지수인 NFI는 .938, TLI는 .927, CFI는 .947로 나타나 모두 적합성 판단 기준인 0.90 초과하여 본 모형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측정 모형의 개념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측변인의 요인적재량을 확인한 결과,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들의 요인적재량은 0.44 ~ 0.90에 해당되어 집중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잠재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상관계수의 절댓값은 0.08 ~ 0.62로 모두 0.8 이하이다. 이를 통하여 각 변수 간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장벽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이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아지고, 진로장벽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beta = 0.277, p < .05$)과 진로장벽($\beta = -0.049, p < .01$)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이들의 진로장벽 수준은 낮아지고, 또한 낮아진 진로장벽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서 살펴본 경로 중에서 사회적 위축은 진로장벽과 유의미한 영향관계($\beta = 0.323, p < .05$)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축 역시 진로와 관련하여 유의하게 살펴보아야 할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진로장벽은 유의미한 이중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eta = 0.039$, $p < .001$). 즉, 다문화 청소년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킬 수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인지하며 이는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의 이중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의 사회적 위축은 진로장벽에는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성에는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사회적 위축은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진로장벽을 매개로 할 때는 간접적으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가설 검증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과 관련된 요인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혹은 개별 요인 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지라도, 여러 요인이 각각의 단계에서 상호작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강화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절 논의 및 제언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8만 명이 감소하여 2018년 기준 5,633,725명을 기록하였는데, 다문화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교육부, 2019). 그동안의 다문화정책들은 정책의 대상이 주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의 유·아동인 경우가 많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들은 소홀히 여겨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들은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미래사회의 국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지도에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김평화, 2019).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진로장벽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을 이중완전매개하여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한다 또는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발달 차이가 사라진다는 연구(우현정 외, 2009; 황혜신·황예정, 2000; 박주희·남지숙, 2010)처럼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기에 접어든 다문화청소년에게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진

로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인식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도 높아진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인식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낮아져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박명숙(2010), 문형란(2016)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부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지민(2013)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인식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이는 다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이들의 진로결정성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영숙(2019)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낮아지고,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결과와 같다.

이에 대한 시사점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진로장벽은 완전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거쳐 진로장벽으로 가는 경로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은 이중 완전매개효과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잇고 있기에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가 되어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들은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적응중심의 정책들과 영유아 취약계층 자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으

로 개편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들은 언어발달과 학습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안정감(security)을 느끼고, 자기탐색과 자기이해를 통해 정체감(identity)을 향상시키며, 또래와 유대감을 나누는 소속감(belonging)과 자신의 포부를 확인하고 목표를 세워 노력하는 목적의식(purpose), 성공경험을 통한 유능감(competence)을 경험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가진 다양성을 사회의 잠재력으로 보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최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개별 능력과 상황을 고려한 진로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진로교육의 단계별 체계화, 자기주도적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다누리(다문화가족지원포털) 홈페이지에 진로지원사이트도 연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 학부모 교육 방식의 다각화, 학부모교육 연간교육과정 개발, 자녀 진로상담관련 지원기관 소개가 필요하다. 또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 받는 것을 기피하거나, 경제활동 참여나 가정 내 돌봄역할이 우선시되는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온라인교육을 통한 학부모 한국어교육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사의 진로지도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상담교사의 연수를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 진로상담을 위한 교육연수자료가 더욱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진로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다문화청소년전문기관 간 연계와 진로교육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진

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문제를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 보고, 다문화청소년이 자립적 직업인으로 자라나 성공적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는 다문화청소년 패널 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이다. 조사응답자 대부분이 어머니가 외국인인 국내출생자녀라서 중도입국청소년, 부모 모두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등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범주별로 이들의 진로결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패널 자료의 단일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횡단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패널 자료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과 관련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반청소년의 진로결정성과 어떤 구조적 차이들이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이들의 진로결정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패널 자료에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소득과 같은 변인들이 수집되지 않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와 경로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상담에 실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다문화청소년 진로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인주·정철영(2013). “경기 지역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과 교육서비스, 자기성찰 및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3): 63-84.
- 고미나(2011). “대학생의 내 · 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향자(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정(2018). “가족지지 및 교육지지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 매개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2016).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89-107.
- 김민희·이제경(2017). “전문대 재학생이 지각한 직업기초능력과 진로결정수준,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0(3): 111-127.
- 김보영·장은비(2015).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7): 31-52.
- 김봉환·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상담과 심리치료』 9(1): 311-333.
-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성남·정철영(2010).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진단 도구 개발”. 『한국농산업교육학회』 42(2): 139-161.

- 김유경(2011).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 미래 한국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45-62.
- 김은서(2019). “청소년이 인식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위축, 그리고 정신건강의 관계”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벽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혜(2017).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표현어휘능력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어휘능력 및 화용언어능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철(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현(2011). “다층모형을 활용한 전문대학 교육서비스와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의 관계” . 『직업교육연구』 30(1): 203-223.
- 김종성·이병훈(2010). “중·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 『한국청소년연구』 21(3): 33-59.
- 김종운·김현희(2014). “일반청소년과 교정시설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0): 515-538.
- 김종운·김현희(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6(6): 797-814.
- 김종운·박성실(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한국진로교육회』 26(3): 123-141.
- 김종철(2014).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 사회 정착에 관한 연

- 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평화(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하라·이향심(2019) “여대생의 부모진로지지, 진로장벽,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간의 구조적 관계”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 19(16): 1121-1142.
- 김현순(2017).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유형 분석”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6(3): 123-141.
- 김후남(2018). “청소년의 초기 외상경험과 우울의 관계: 거부민감성,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문제의 순차적 매개효과” .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숙(2015).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 가정생활과 취업활동을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부현·최충욱(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 『진로지도교육연구』 25(3): 117-137.
- 남이환(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 가족 , 친구, 타자의 지지 유형”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경란·박용호·허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진로개발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대졸 청년의 능력개발 노력과 주관적 취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 196-219.
- 노혁(200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 연구” . 『청소년학연구』 13(6): 306-328.

- 모상현(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 교사 및 또래친구 요인의 조절효과” . 『청소년문화포럼』 54: 67-93.
- 문새롬(2016)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 :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형란(2016).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아존중감, 가족 및 사회관계의 매개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영화(2019).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 연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원홍·손선옥(2017)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의 발달 궤적에 대한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 : 부모지도감독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75-99.
- 박명숙(201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193-218.
- 박미정·유난숙(2017).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2): 67-84.
- 박병선·배성우·박경진·서미경·김혜지(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 박수길(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순희(2009).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유연성 연구” . 동신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박승민·강민철·김은하(2015). “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중
고등학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63-84.

박양숙(2012).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활동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시장형 일자리 참여노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
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용두(2008). “사회적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관계 모형 검증: 집단
자존감과 개인자존감의 매개역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은민(2013). “다문화 청소년의 생활경험 지각에 관한 질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20(3): 1-21.

박재은·이정애·이지연·정익중(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빈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
소년복지연구』 13(3): 93-116.

박종인(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 생태체계 요인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주희·남지숙(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57: 129-152.

박지윤(2007).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일·김기원(2003). “군집분석을 통한 진로미결정 집단의 유형연구 :
전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24(2): 161-187.

방희원·조규판(2018).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불안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4(2):

101-116.

배상률(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진희 · 이제경(2009). “부모진로행동이 중학생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153-2167.

서혜경(2009). “모-자녀 간 촉진적 의사소통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삶의 지향성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선남이(201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은령(2004). “진로선택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역할”. 『상담학연구』 5(3): 623-635.

손은령(2002).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5(2): 73-82.

송선진(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승민 · 이유현(2012). “초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9): 25-46.

송지은(2018). “지방 전문대학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5(9): 21-47.

송진영(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주연(2006).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치료와 진로 성숙도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은·오석영(2018). “대학생의 진로학습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분석”. 『청소년문화포럼』 53: 63-92.
- 심경보(2008). “중학교 학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진로 의식 성숙과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김주영(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난미(2005). “한국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선택 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미진·허자영·채민정·김경민(2010).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장벽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4): 45-73.
- 엄태영·박은하·주은수(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친구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 엄태영(2016).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성배·서덕희(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오승환(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1-27.
- 오영경·이형실(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4): 51-64.
- 우지희(2016). “청각장애부모 건청자녀(CODA)의 수화수용정도가 사회적

- 위축과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신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 이항심 · 황매향 · 홍세희(2007). “학업우수 여학생의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 『한국청소년연구』 18(3), 357-380.
- 유성경 · 이항심 · 황매향 · 홍세희(2007). “학업우수 여학생의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 『한국청소년연구』 . 18(3): 357-380.
- 유일 · 김소라(2013).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대학졸업예정자들의 구직의도 영향요인 및 인과구조 분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1): 198-212.
- 육주홍(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경험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님의 진로지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문정 · 나운환(2013). “장애청년의 장애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장벽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 1-23.
- 이미선(2017). “사회복지전공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GRI연구논총』 19(3): 159-182.
- 이병기(2015).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문헌정보학회』 49(3): 311-332.
- 이봉주 · 민원홍 · 김정은(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선아(201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학생 요인 및 대학 요인의 다층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수정 · 신지철 · 김향희 · 김화수(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언어치료연구』 17(3): 95-115.
- 이시연 · 박은미(2009).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41-159.
- 이아라 · 이주영 · 손보영(2018).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5(11): 35-64.
- 이유경 · 류재운 · 방홍복(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129-154.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 역 (2019). 『불평등 트라우마: 소득 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심리적 영향력과 그 이유』. 서울: 도서출판 생각이음.
- 이재희 · 이경상(2018). “부모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1): 143-153.
- 이종원(201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희 · 문은미(2011).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211-226.

- 이지민(20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관계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진수진·주현정·조연실(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 부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87-98.
- 이철원(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 및 비행 예방 프로그램 개발”. 『교정복지연구』 31: 59-84.
- 이하리·이영선(2015). “청소년의 교사· 또래 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467-486.
- 이현선(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과 언어소통능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2016).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임경희(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 여부와 성별에 따른 직업포부와 진로 흥미 및 진로인식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6(2): 67-89.
- 임혜경(2017). “장애청소년의 개인·사회적 변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특성의 관계”.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0(1): 139-160.
- 장일식(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에 따른 비행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란영·김희화(2016).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2): 57-67.

- 전민재(2019). “한국 전문대학생 진로 역량 구인개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주·박미화(2018).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와 진로 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17(2): 23-37.
- 전정민(2017).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쓰기 능력과 학령기 자녀의 한국어 쓰기 능력의 상관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신민섭·이승연 역(2009). 『청소년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정윤경(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축”. 『직업능력개발연구』 5(2): 147-172.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정일영(2016).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2: 87-118.
- 조명실·최경숙(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75-1099.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주장훈(2006). “중학교 학생 진로인식 및 진로교육 실태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애(2017).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김순자(201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0(3): 743-762.

- 최인수(2009).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사회적 요인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욱·황보명(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0(4): 315-329.
- 탁진국(1996). “경력미결정과 부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9(2): 81-94.
- 탁진국·이기학(2003).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경영 연구』 1(1): 167-180.
- 한창훈·조영아(2016).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4): 79-107.
- 허경민(2017). “독립적자기관과 진로낙관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율성과 지각된 외적 진로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경화 (2002). “청소년의 위축행동 수정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인영 (2015). “부모에 의한 정서폭력이 청소년 또래에 의한 정서폭력 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다중매개효과분석”.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우정(2019).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매향 · 이아라 · 박은혜(2005).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2): 125-159.

황민철(2016).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다문화컨텐츠연구』 21: 43-81.

황상심(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정희 · 임석빈(2015).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고용가능성,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 『한국진로교육학회』 28(2): 87-105.

Astin, A. W. (1984). “Student involvement: A developmental theory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4): 297-308.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Bandura, A. ; Barbaranelli, C. ;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 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Betz, N. E. ; Voyten,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Betz, N. E. ; Klien, K. ; Taylor, K.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 Brown, M. T. ; Eisenberg, A. I. ; Sawilowsky, S. S. (1997). “Traditionality and the discriminating effect of expectations of occupational success and occupational values for women within math-oriented field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418-431.
- Carliner, G. (2000). “The language ability of U.S. immigrants: Assimilation and cohort effec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4(1): 158-182.
- Chiswick, B. R. ; Miller, P. W. (1998). “Hebrew language usage: Determinants and effects on earnings among immigrants in Israel.”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2): 253-271.
- Chiswick, B. R.; Miller, P. W. (2001). “A model of estimation-language acquisition: Application to male immigrants in Canada.” *Demography* 38(3): 391-409.
- Chiswick, B.R. ; Lee, Y.L. ; Miller, P.W. (2012). “Parents and Children Talk: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within Immigrant Familie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3: 243-268.
- Coie, J. D. ; Koepl, G. K. K. (1990). “Adapting intervention to the problems of aggressive and disruptive children.”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309-337.
- Deci, E. L. ; Ryan, R. M.; Gagn. M.; Leone, D. R.; Usunov, J.; Kornazheva, B. P. (2001).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well-being in the work organizations of a former eastern bloc country: A cross-cultural study of self-determination.”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8): 930-942.
- Duncan, G. J. ; Brooks-Gunn, J. (1999).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ustmann, C. (1994). "Speaking fluency, writing fluency and earnings of migran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7(2): 133-156.
- Espinosa, K. E .; Massey, D. S. (1997). "Determinants of English proficiency among Mexican 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1): 28-50.
- Goodwin, R. D. ; Fergusson, David M. ; Horwood, L. John (2004). "Early anxious/withdrawn behaviours predict later internalising disord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4): 874-883.
- Gorodzeisky, A. ; Sarid, O. ; Mirsky, J. ; Slonim-Nev (2014). "Immigrant Families: Mothers' and Fathers' Proficiency in a Host-Country Langu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Daughters and S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5): 713-727
- Hargrove, B. K. ; Creagh, M. G. ; Burgess, B. L. (2002).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s predictors of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185-201.
- Hwang, S-S. ; Xi, J. (2008). "Structural and individual covariate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Social Forces* 86(3): 1079-1104.
- Jane L. S. ; David M. T.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Joslyn, B. M. (2015). "Exploring the impact of a career development intervention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goal instability of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s, given perceived barriers." *Ph.D.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Educational Psychology and Learning Systems*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Kernis, M. H. ; Lakey, C. E. ; Heppner, W. L. (2008). "Secure versus fragile high self-esteem as a predictor of verbal defensiveness: Converging findings across three different markers." *Journal of personality* 76(3): 477-512.
- Kerr, M. ; Lambert, W. W. ; Bem, D. J. (1996). "Life course sequelae of childhood shyness in Sweden: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100-1105.
- Leake, D. ; Boone, R. (2007).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elf-Determination From Youth, Parent, and Teacher Focus Groups."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30(2): 104-115.
- Lent, R. W. (2004). "Toward a Unify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on Well-Being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4): 482-509.
- Lent, R. W. ;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ent, R. W. ; Brown, S. D. ; Larkin, K. C. (1986). "Self-efficacy in

- the prediction of academic performance and perceived career op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3): 265-269.
- Lent, R. W. ; Brown, S. D. ; Brenner, B. ; Chopra, S. B. ; Davis, T. ;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74-483.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4): 239-248.
- Ma, P-W. W. ; Yeh, C. J (2010).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fluencing the Educational and Career Plans of Chinese Immigrant Youth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3): 230-245
- Mesch, G. S. (2003). “Language proficiency among new immigrants: The role of human capital and societal conditions: The case of immigrants from the FSU in Israel.” *Sociological Perspectives* 46(1): 41-58.
- Rosenberg, M. ; Schooler, C. ;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41-156.
- Pulliam, N.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Initial Career Choice Among Low-Income, First Generation, Pre-Freshman,

- College-Bound Students.” *Journal of College Access* 3(2): 85-109.
- Oh, W. ; Rubin, K. ; Bowker, J. ; Booth-LaForce, C. ; Rose-Krasnor, L. ; Laursen, B. (2008).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4): 553-566.
- Ulas, O. ; Yildirim, İ. (2019). “Influence of locus of control, perceived career barriers, negative affect, and hopelessnes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mong Turkish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9: 85-109.
- Park, H. ; Tsai, K.M. ; Liu, L.L. ; Lau, A.S. (2012). “Transactional associations between supportive family climate and young children’s heritage language proficiency in immigrant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6(3): 226-236
- Parker, J. S. ; Benson, M. J. (2005). “Parent-adolescent relations and adolescent functioning: Self-esteem, substance abuse, and delinquency.” *Family Therapy* 32(3): 131-142.
- Prevoo, Mariëlle J. L. ; Malda, M. ; Mesman, J. (2016). “Within- and Cross-Language Relations Between Oral Language Proficiency and School Outcomes in Bilingual Children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A Meta-Analytical Stud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6(1): 237-276.
- Rubin, K. H. ; Chen, X. ; McDougall, P. ; Bowker, A. ; Mckinnon, J. (1995). “The waterloo longitudinal project: Predicting

-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04): 751-764.
- Rubin, K. H. ;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Rubin, K. H. ; Coplan, R. J. (2004).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 - Palmer Quarterly* 50(4): 506-534.
- Rubin, Kenneth ; Coplan, Robert (2004).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 - Palmer Quarterly* 50(4): 506-534.
- Schwartz, D. ; Farver, J. ; Chang, L. ; Lee-Shin, Y. (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2): 113-125.
- Coopersmith, S. (1968). “Studies in Self-Esteem.” *Scientific American* 218(2): 96-107.
- Super ,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wanson, J. L. ; Daniels, K. K. (1995).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to self esteem,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 Tokar, D. M.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 level of mother's Korean language competence recogniz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o verify whether their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and career barriers are mediating such relationship.

Based on the sixth year's 'Youth Response Data', the most recent data from the 'A Longitudinal Study on the Youth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pplied to 1,283 people who responded to all questions used in the research model using SPS 21.0 and AMOS 18.0 statistical program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path coefficient of the structure equation model confirmed that the level of mother's Korean language competen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hild's self-esteem and on the career barriers.

Second, self-esteem and career barri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mother's Korean language competence and the leve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decision-making show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ther's level of Korean language competence directly affected the career barriers, and

then the career barriers directly affected the career decision-making.

Finally, it was verified that the self-esteem and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double-complete mediation effect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heir mother's Korean language competence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despite the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our society and the high proportion of Korean-born multicultural adolescents, current policies still tend to focus on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learning areas of multicultural children. A program that can improve self-esteem through experience of security, identity, belonging, purpose and competence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enhance self-esteem.

Career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carried out step by step in a solid manner through self-directed career exploration program, and the career support site should be linked to the Danuri(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rtal) website.

Third, development of data for parents' education, diversification of parents' education methods, development of annual education courses for parents' education, and introduction of support institutions related to children's career counseling are needed in order to strengthen parents' career competences. In

addi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support for parents through onlin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ir reluctance to take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educational institutions as the length of residence increase or many parents spend their time mainly in economic activities or household labor.

Fourth, teachers' career guidance skills should be strengthened. The training of career counseling teachers should be strengthened and more educational training material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 counseling should be developed.

Finally, a community career support system will need to be established.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w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receive integrated career sources in their homes, schools and communities through links between school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youth training facilities, and information sharing.